陽村先生 "서천견록(書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다음호에 계속〉

작은 달 여섯으로 일삭(一朔)의 빈 날[虛日]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를 일러 삭허(朔虛)라고 부른다. 여분을 제외하고도 5일이 모자라는데, 이것이 1년 12번 만남(會)에서 발생하는 윤수(閏數)이다. 윤(閏)이란 나머지를 이른다. 여섯 큰 달[六大月]로 윤(閏)을 삼아야 타당할 듯한데, 삭허(朔虛)로 하는 것은 육대월(六大月)이 이미 사용되었기때문이다. 삭허(朔虛)는 앞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수가 뒤에서 윤(閏)이 되는 것이다. 육대월(六大月)과 육소월(六小月)을 합하면 354일이며, 그 사이에 달은 이미 12번 이지러졌다. 그러므로 1태음년은 달의 그믐날을 따라 한 해의 마침으로 삼고, 이듬해 정월(正月) 5일에 이르러서야 지난해의 삭허(朔虛)를 미루어 계산하여 360일의 상수(常數)를 채운다. 여기서 다시 5일을 지난 뒤에 경성(經星)이 일주(一周)하면서 천기(天氣)가 마치게 되니, 이때는 이미 이듬해 정월 10일이다. 그리고 지난 해의 기운이 남아 여기에까지 미치므로 이를 일러 기영(氣盈)이라 부른다. 기삭(氣朔)과 합하여 10일이 되니, 이것이 한 해의 윤율(閏率)이다. 그러므로 1년이면 정월 중순 뒤에야 별이 일주하게 되며, 3년이면 30일 뒤에야 별이 일주하게 된다. 이때 달의 이지러짐으로는 이미 13삭(朔)이나, 별(星)의 주천으로는 두성(斗星)이 아직 두 별[兩辰] 사이를 가리키니, 여전히 지난 해의 절후(節候)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 번의 윤달을 둔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름은 축년(丑年)의 봄인데도 기운은 아직 자년(子年)의 겨울이고 추위와 더위가 거꾸로 뒤바뀌는 지경이 되어 모든 일들이 그때를 잃게 된다. 그래서, 성인(聖人)이 이러한 윤법(閏法)을 세워 때를 정하고 한 해를 이루게 하였다. 천도(天道)는 위에서 스스로 돌고 성인은 마음으로 이에 오묘하게 합치시켜, 계절에 맞게 만물을 기르고 표준을 세워 후세에 보여 주었다. 천년 만년 이를 사용하여도 어긋남이 없으며, 참여하여 도운 공덕이 무궁히 후세에 드리우니, 오호라! 위대하도다.

5

순은 맹렬한 바람과 번개가 치고 비가 오는데도 혼미하지 않았으며, 공자는 번쩍이는 번개와 맹렬한 바람에 반드시 안색을 바꾸었다. 혼미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늘에 대해서 오만했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안색을 바꾸었다고 해서 평상의 도리를 잃은 것이 아니다. 모두 같이 공경하는 마음의 발로이다. 그러므로 모습에 나타내서는 반드시 변한 것이요, 일을 행하면서는 혼미하지 않은 것이니 모두 마음에 주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공자처럼 반드시 안색이 변하는 공경함이 없다면 반드시 두려워하여 평상의 도리를 잃을 것이니, 순이 혼미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는 할 수 없을 것이다.

6

맹자가 말하기를 "요 임금이 순을 하늘에 천거하니 하늘이 이를 받아들였고, 백성들에게 드러내니 백성들이 이를 받아들였다. 순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모든 신들이 흠향하였고, 순으로 하여금 일을 주관하게 하니 일이 잘 다스려졌다"고 하였다. 지금 "서경"의 〈순전〉을 가지고 살펴보니 "선기옥형(璿璣玉衡)을 살펴 해와 달과 다섯 항성을 고르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받아들인 것이다. "다섯 가지 서옥(端玉)을 거두시고 사악(四岳)을 만나보셨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받아들인 것이다. "오전(五典)을 잘 따랐으며, 백규(百揆)가 알맞게 시행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일이 다스려진 것이다. "상제(上帝)에게 유(類)제사를 올리고 육종(六宗)에게 인(禋)제사를 올린다"라고 한 종류는 신이 흠향한 것이다. 이씨(李氏)는 '맹자'를 인용하여 '서경'의 이 대목에 대한 주석으로 삼았으니 믿을 만하다. 그러나 그가 "요 임금이 순을 큰 산 기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구절을 제사를 주관하게 한 것으로 주석한 것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다음호에 계속〉

특기별고 〈34회〉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명종 21년(선조 즉위년 : 1567년) 10월에 영의정 이준경(李浚慶)을 비롯한 삼 공(三公)의 계사(啓辭)에 따라, 충재 선생의 모든 작위를 삭탈관직과 유배를 당하기 이전과 같이 내리도록 하였다. 이때는 명종이 6월에 승하하고 선조가 7월에 즉위하여 을사사화 이후 억울한 누명을 쓴 현정신(賢正臣)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도록 계청하면서 이준경은 "권벌(權橃)은 덕행이 갖추어졌고 충성 또한 지극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윤허 전교 후에 유희춘(柳希春)이 이뢰기를. "전교를 읽다가 권벌(權橃)과 이언적(李彦迪)의 누명을 씻어 주시는 말씀에 이르러서는 저도 모르게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 "라고 아뢰었다. 12월에는 경상도 관찰사 박계현(朴啓賢)이 장계를 올려 특히 선생과 이언적을 포장(褒奬)하도록 청하자 즉시 윤허하였다. 선조 원년(1568년) 2월에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 영경연감춘추관사(領經筵監春秋館事)에 증직되었다. 다음해 6월에 선생의 행장(行狀)을 이황(李滉)이 지었다. 선조 3년(1570년) 5월 6일("선조실록"4권, 1번째 기사)에 선생에게 충정공(忠定公)이라는 시호가 조광조(문정공文正公)와 이언적(문원공文元公)과 함께 내렸다. 임금을 섬김에 절개를 다하였으니 '충(忠)'이요, 순수한 행실이 헛되지 않았으니 '정(定)'이라 하였다.

선조 21년(1588년) 사림(士林)들의 발의에 의하여 선생이 사시던 집의 서쪽 산 너머 사현리에 서원을 세우도록 재력을 모으고 협조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마침 김우옹(金宇顒)이 안동대도호부사로 있어 일이 성사되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선조 24년(1591년) 선생에게 「광국훈(光國勳: 명나라의 역사서에 태조 이성계의 혈통이 이인임(李仁任) 아들로 잘못 기록되어 있어 여러 차례 변무사(辨誣使)를 파견하였다. 마침 이 때에 "속찬대명회전(續纂大明會典)"이 발간되어 이를 바로 잡게 되어, 선생 62세 때(중종 34년:1539년) 7월에 지중추부사로 개종계주청사(改宗系奏請使)로 북경에 사신으로 갔었다. 이에 대한 기록이 선생의 "조천일록(朝天日錄)"에 전한다」으로서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관상감사에 증직되었고 광국원종일등공신 녹권을 하사받았으며 친진부조(親盡不祧)하라는, 즉 '신주(神主)를 영원히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모시라' 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선조 25년(1592년) 봄에 서원의 묘우(廟宇)가 완성되어 신주를 모시는 의식을 거행하려고 하였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 시행하지 못하였다. 9년 뒤인 선조 34년 9월에야 위패를 서원에 봉안하였다. 서원의 모든 당실(堂室)과 재문(齋門)은 정구(鄭逑)가 지어 명명하였다. 인조 원년(1623년)에 신도비를 세웠다. 일찍이 선생이 좌의정에 증직되자 박순(朴淳)이 지은 신도비문이 있었으나 뒤에 다시 영의정에 증직되자 정경세(鄭經世)가 다시 지었다. 효종 10년(1659년) 사림에서 상소하여 서원에 사액(賜額)할 것을 청원하였는데 임금의 윤허가 있었다. 그런데 효종이 곧 5월에 승하여 다음해인 현종 원년(1660년) 2월에 삼계서원(三溪書院)의 사액을 하사하고 예관을 보내어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 영조 22년(1746년) 9월에 영조는 선생이 늘 지니고 다니며 읽었던 수진본 "근사록近思錄"을 경회루 상화연(賞花宴) 때 떨어뜨린 것을 중종이 선생의 책이란 것을 알고 돌려 주 일이 있었는데, 영조는 '바로 이 책이다'라고 하면서 열람하고, 당시 선생의 6대손 정랑(正郞) 권만(權萬)을 불러 다른 "근사록"과 서책과 함께 하사하고 집안에 전하도록 하였다. 정조 18년(1794년) 8월에도 중종과 영조가 되돌려 하사했던 2종류의"근사록"을 열람하고 "심경心經"한 질을 더 얹어 하사하면서 어제(御製) 서문(序文)을 지어 함께 내렸다. 정조의 서문과 경연에서의 말씀에는 '선생의 "근사록"과 이황의 "심경"을 거론하고, 이 두 책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고 또 두 현신(賢臣)의 사적이 서로 비슷하다 … 이 책들은 규장(奎章)의 보화로다.' 라고 하였다.

철종 2년(1851년) 경상도 유생들이 상소하여 문묘종사(文廟從祀)를 청원하였다. 정조 14년부터 사림들이 여러 차례 이를 발의하여 왔으나 임금에게 아뢰는 상소를 하지 못하였었다. 신중을 기하여 후일에 공정한 의론을 기다리자는 비답이 있었다. 2년 후인 철종 4년에 다시 경기, 충청, 강원 3도 유생과 가을에 성균관 유생들의 선생을 '문묘종사를 청원하는 상소(청무소請廡疏)'가 있었고 비답은 있었으나 조정의 일로 다음으로 미루고 말았다. 고종 20년(1883년)에도 경상도 유생들의 상소와 후일로 미루는 비답의 같은 일이 반복 되었다.

문묘(孔廟공묘; 성균관)의 대성전(大成殿)에 공자를 비롯한 배향(配享)과 종사된 인물의 기준과 그 목적도 '유학의 도를 창도조술하며 계승전파에 공이 있어, 천하세상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 성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석전釋奠;2월과 8월 상정일, 삭망의 분향)하며 이를 통해 '그 뜻을 기리고 계승하여 스스로 올바로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성현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동방 18현'은 인조반정으로 영남인과 기호인으로 시대와 사회정치적 상황에 따라 편중되었다고 본다. 3년간 충재 선생의 출처(出處)와 절의 및 군국기무의 공업(功業)과 학문사상을 연재하면서 그 훌륭함에 방손(傍孫)으로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이며, 직계후손들과 안동 권문의 일족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끝〉

雲谷書院誌

운 곡 서 원 지

第一編 지리(地理) 및 건물(建物)

운곡서원지리 약록(雲谷書院地理略錄)

신라(新羅)의 옛 도읍(都邑)인 경주의 동쪽에 커다란 산이 있으니 곧 운제산(雲梯山)인데 신령(神靈)스럽게 빼어난 한 맥(脈)이 북으로 5리를 달려 갑묘(甲卯)의 방향으로 머리를 돌리고 줄기가 열려 깊고 그윽한 한 구역이 운곡(雲谷)이 되니 묘좌유향(卯坐酉向)으로 형국(形局)이 평탄(平坦)한 것이 대략 3정보(町步) 정도 되는 가운데, 반월대(半月垈)가 있어 동쪽을 향해 서원(書院)과 마주하고 있다. 앞에 있는 좌청룡(左靑龍)은 화산(花山)인데 동남(東南)으로부터 높아졌다가 낮아져서 왼쪽 전면(前面)으로 둘러서고 줄기의 끝이 맺혀서 사조암(思祖巖)을 이룬다.

우백호(右白虎)는 동북(東北)쪽으로부터 우뚝 서서 물방등(勿放嶝)이 되고, 오른쪽 앞으로 임(臨)하여 좌청룡과 더불어 서로 휘돈다. 좌청룡 아래의 맑은 시내는 동남쪽 계곡의 사라리(舍羅里) 은도암(隱道庵)에서부터 내려와 국내(局內)에 이르고, 남쪽 산 아래에서 폭포(瀑布)가 되며 유연정(悠然亭:1998년 4월13일 경상북도문화재자료 제345호로 지정되었다. 운곡서원에서 계곡 쪽으로 50m 정도 떨어진 용추대 위에 세워진 정자이다.)과 반월대(半月垈)를 안고 돌아 흐른다. 우백호(右白虎) 아래의 맑은 시내는 동북쪽 청석곡(靑石谷)에서부터 국내의 물방등 아래에 이르러 두 물이 반월대 아래에서 합해지고, 아홉 구비를 에돌아 흘러 골짜기 밖으로 나가서는 화산천(花山川)과 합하여 왕신(旺信) 못을 이룬다.

사방(四方)의 마을 이름은 동쪽이 사라리(舍羅里)이고, 남쪽이 화산리(花山里)이고, 서쪽이 밀곡리(密谷里)인데 월곡(月谷)이라고도 하며, 북쪽은 왕신리(旺信里)이다. 국외(局外)를 관망(觀望)하면 동쪽은 푸른 바다와 영일(迎日)이 20리이고, 남쪽으로는 경주 옛 도읍이 30리이고, 서쪽으로는 자옥산(紫玉山)이 40리이며, 북으로는 형산강(兄山江)이 10리이다.

서원묘우재당정대 약설(書院廟宇齋堂亭垈 略說)

창건(創建)할 때, 묘우(廟宇)는 '추원사(追遠祠)'라 하고, 당(堂)은 '영보당(永報堂)'이라 하였으며, 동쪽 방은 '돈교재(敦敎齋)', 서쪽 방은 '잠심재(潛心齋)'라 하고 외삼문(外三門)은 '견심문(見心門)'이라 하고, 정자(亭子)는 '유연정(悠然亭)'이라 하고, 돈대(墩垈)는 '반월대(半月垈)'라 하였다. 중건(重建) 후에 사림(士林)에서 '운곡서원(雲谷書院)'이라고 관액(板額)을 걸었다. 묘우(廟宇)는 '경덕사(景德祠)'인데 5량(樑)에 6칸(間)이고, 신문(神門) 즉 내삼문(內三門)은 3칸이며 담장은 사구석(四口石)으로 쌓았다. 강당(講堂)은 '정의당(正懿堂)'인데 5량 10칸이고, 동쪽 방은 '돈교(敦敎)'이고, 서쪽 방은 '잠심(潛心)'인데, 동서재는 각각 3칸이고, 외삼문(外三門)은 '견심문(見心門)'으로 3칸이며, 담장은 사구석으로 쌓았다. 폭포 위에 있는 '유연정(悠然亭)'은 5량 6칸이고, 전사청(典祀廳) 및 별임실(別任室)이 4칸이고, 재실(齋室)은 5칸이다. 고자실(庫子室)은 정침(正寢)이 4칸이고, 주사(廚舍)가 5칸이다. 정직실(亭直室)은 정침이 3칸이고, 협실(夾室)이 2칸이다.

서원의 대문 앞에 반월대(半月垈)가 있고, 대(垈)의 남쪽에 있는 행단(杏壇)은 본소(本所)를 창건한 후 5년인 기유년(1789)에 죽림공(竹林公) 권산해가 신원(伸寃)되고 작위(爵位)가 회복되었을 때 공의 12세손 권종락(權宗洛)이 순흥(順興)의 금성단(錦城壇)에서 압각수(鴨脚樹) 가지를 잘라서 가지고 와 심은 것이다.

第二編 서원전사(書院前史)

가. 창사(創祠)

1. 운곡서원 약사(雲谷書院 略史)

(가) 추원사(追遠祠) 창건(創建)

정조 10년 병오년(1786)에 추원사(追遠祠)를 세우고 태사공을 '태사권선생(太師權先生)'으로 위판(位版)을 조제(造題)하여 주벽(主壁)으로 받들었다. 그리고 태사공의 18세손 죽림(竹林) 권산해(權山海)를 '죽림권공(竹林權公)'으로 칭하여 동쪽에 곡배(曲配)하고, 22세손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을 '귀봉권공(龜峯權公)'으로 칭하여 서쪽에 곡배하였다.

추원사를 세우게 된 내막은 다음과 같다. 영조 14년 무오년(1738)에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의 후손들이 선영(先塋)으로 확보한 운곡(雲谷)에 귀봉(龜峯)을 받드는 사우(祠宇)를 창건하고자 하니 옥산서원(玉山書院)을 비롯한 일대의 유림에서 발의하여 운천서원(雲泉書院)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46년이 지난 정조 8년 갑진년(1784)에 일어난 논의에 따라 시조 태사공을 중존위(中尊位)로 하고 죽림(竹林) 권산해(權山海)와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을 배향(配享)하는 추원사를 세우게 되었다. 순조 11년 신미년(1811)에 유연정(悠然亭)과 주사(廚舍)를 완공하였다.

(나) 훼철(毁撤)-설단(設壇), 단향(壇享)

고종 5년 무진년(1868)에 조정(朝廷)의 서원철폐령(書院撤廢令)으로 훼철(毁撤)되었다. 이에 후손들은 그 뒤에 위판(位版)을 탑산(塔山)에 매안(埋安)하고, 사당이 있던 자리에는 고종 28년 신묘년(1891)에 제단(祭壇)을 만들고 담장을 둘러 향화(香火)를 받들었다.

광무 5년 신축년(1901) 겨울에 양산(梁山) 통도사(通度寺)의 중고산(古山)이 운곡서원의 터가 원래 사찰의 경계에 속해 있었다고 하여 일대(一帶)가 불가(佛家)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강탈하고자 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후손들의 노력으로 일이 해결되어 계묘년(1903) 봄에 사림(士林)이 유림(儒林) 행사로 봄철에 한 번 제단에 제의(祭儀)를 드릴 것을 발론(發論)하여 승봉(承奉)키로 하였다. 이후로 일제시대에도 단소(壇所) 제향(祭享)은 3월 초정일(初丁日)에 한 번씩 계속되었다. 을유년(1945) 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여 단향(壇享)을 정지하게 되었다. 2년 뒤인 정해년(1947)에 복향(復享)하였다.

(다) 추원사(追遠祠) 중건(重建) 논의(論議)

경자년(1960) 10월에 안동의 능동재사(陵洞齋舍)에서 태사공(太師公)의 묘사를 지내고 음복(飮福)하는 자리에서 능동재사를 수리하기로 의논을 정하고 운곡(雲谷)의 추원사를 다시 세울 것을 의논하였다.

신축년(1961) 정월 25일에 안동의 태사묘(太師廟) 숭보당(崇報堂)에서 대종회(大宗會)를 열어 능동재사의 수리와 중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그러나 일은 추진되지 못했다. 임자년(1972) 10월에 능동(陵洞)에 구신도비각(舊神道碑閣)을 세워 낙성하였는데 이 자리에서 재일교포(在日僑胞) 제족(諸族)이 운곡(雲谷)의 추원사(追遠祠)를 중건하기로 의논을 정했다.

병진년(1976) 2월 20일에 추원사 중건 공사 착공을 위해 훼단(毁壇)을 고유(告由)하고 3월 12일에 훼단하였다. 같은 해 5월 16일에 신문(神門) 즉 내삼문(內三門)의 기둥을 세우고 상량(上樑)하였다. 6월 3일에는 강당(講堂)을 상량하였는데 이때 강당의 이름을 '영보당(永報堂)'에서 '정의당(正懿堂)'으로 개칭하였다. 7월 4일에는 사당이 준공되고, 7월 말에 강당이 완공되었다. 8월 말에 외삼문(外三門)인 견심문(見心門)이 완성되고, 유연정(悠然亭)의 직실(直室)을 신축하였다. 같은 해에 '운곡서원(雲谷書院)'으로 승격하여 복원(復元)하였다.

2. 운곡서원 연혁(雲谷書院 沿革)

경주(慶州)의 운곡서원(雲谷書院)은 정조(正祖) 10년 병오년(1786)에 경주에 사는 권씨 자손들이 '시조 태사공의 충의(忠義)가 곧 조국(祖國)인 신라(新羅)에 대한 마음이었으므로 마땅히 신라의 도읍에 사당을 세워 그 성심(誠心)을 표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드디어 경주의 운곡(雲谷)에 추원사(追遠祠)를 세우고 태사공을 '태사권선생(太師權先生)'으로 위판(位版)을 조제(造題)하여 주벽(主壁)으로 받들었다. 그리고 태사공의 18세손 죽림(竹林) 권산해(權山海)를 '죽림권공(竹林權公)'으로 칭하여 동쪽에 곡배(曲配)하고 22세손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을 '귀봉권공(龜峯權公)'으로 칭하여 서쪽에 곡배하였는데 이 일을 주축이 되어 주선한 것은 일대에 세거하는 좌윤공파(佐尹公派) 후손이었다.

이 추원사가 있는 운곡은 지금 경북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江東面 旺信里)이다. 추원사 창건 당시 국당(菊堂) 문중에서 임야 약 90정보(町步)와 경내(境內) 전답(田畓)을 봉상(捧上)하였다. 이곳의 형승(形勝)을 묘사한 지은이 미상의 '지리약록(地理略錄)'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곳에 권씨의 서원을 세우게 된 발단은 영조(英祖) 14년 무오년(1738)에 23세손 귀봉(龜峯) 권덕린(權德麟)을 제향하는 운천서원(雲泉書院)을 세우는 것으로 비롯되었다. 고려가 망하자 수절(守節)한 16세손 송고(松皐) 초(軺)의 6대손이고 단종(端宗) 손위(遜位)에 은둔한 향일재(向日齋) 수해(壽海)의 현손인 귀봉은 중종(中宗) 24년 기축년(1529)에 출생하여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그 심학(心學:마음을 닦는 학문의 뜻으로 '성리학'을 일컫는 말)의 주종을 터득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議政公 遺墟碑 建立

복야공파(僕射公派) 판서공계(判書公系) 의정공(議政公) 휘(諱) 사빈(士彬) 선조(先祖)의 유허비(遺墟碑)를 다음과 같이 건립(建立)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허비(遺墟碑) 건립의 취지(趣旨)를 깊이 이해(理解)하시고, 선조(先祖)를 위하는 이 사업이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둘 수 있도록, 성금(誠金) 모금(募金)에 적극적(積極的)으로 협조(協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금(獻誠金)을 낸 내용을 기록(記錄) 보존(保存)하기 위하여 주소, 성명, 금액을 오석(烏石)에 음각(陰刻)한 헌성비(獻誠碑)를 유허비(遺墟碑) 인근(隣近)에 세울 예정(豫定)입니다.

◈ 遺墟碑建立 規模

- ⦿ 場　　所 : 安東市 北後面 道村里 議政公 世居地
- ⦿ 規　　模 : 碑身 七尺 龍頭 龜坐板
- ⦿ 敷　　地 : 約 三百坪
- ⦿ 所要豫算 : 約 一億원(推定)
- ⦿ 성금계좌 : 농협 302-0591-0285-31
- ⦿ 예 금 주 : 의정공유허비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權五崇
- ⦿ 連 絡 處 : 安東市 北後面 道村里
- ⦿ 常任實務委員 : 權東一 전화 054-859-5329 010-7176-3309
- ⦿ 追　　信 : 지역별(서울 부산 대구 등)추진위원회 구성 예정

◈ 贈領議政 五先 權先生(諱 士彬) 後孫

1. 檥(號 野翁 20世)⇒ ①審己(21世 安東 道村) ②審言(21世 醴泉 渚谷) ③審問(21世) ④審思(21世 醴泉 眞勺) ⑤審辨(21世 奉 化 三洞) ⑥審行(21世 安東 道村) ⑦審止(21世 安東 賢功山)
2. 檥(號 冲齋 20世)⇒ ①東輔(21世 奉化 酉谷) ②東美(21世 奉化 酉谷) ③東進(21世 奉化 酉谷)
3. 欐(字 叔泛 20世)⇒ ①東弼(21世) ②東敏(21世)
4. 檣(號 霽村 20世)⇒ 好金(21世 醴泉 渚谷)

2012. 12. 1

議政公遺墟碑建立推進委員會 委員長 權五崇